

시신경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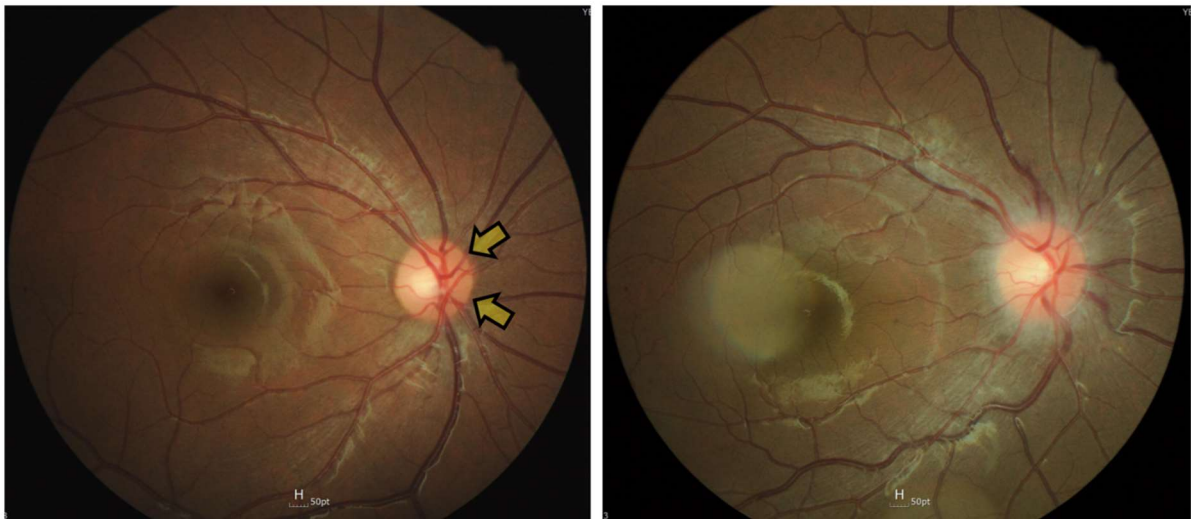
시신경은 무엇인가요?

시신경은 우리 몸에서 보는 것을 담당하는 신경을 말합니다. 이 시신경은 우리 눈 안에 위치하고 있고, 눈 뒤쪽으로도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눈은 머리 앞쪽에 위치하지만, 뇌에서 보는 것을 담당하는 부위는 머리 뒤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의 시신경뿐만 아니라 머릿속의 시신경에 질환이 생기면 시력저하나 시야결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신경염은 무엇인가요?

시신경염이라 하면 관절염, 간염 등의 병명과 같이 시신경의 염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몸의 신경들과는 다르게 시신경은 의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왼쪽은 정상적인 눈 속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시신경염 환자의 눈 속 사진입니다. 왼쪽에서 화살표 부분을 시신경유두라고 하는데, 우리 눈 안의 시신경이 모여서 눈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계가 명확한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시신경염에서의 시신경유두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를 시신경이 부어 있다고 하며, 이를 시신경염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눈쪽 보다 뇌쪽의 시신경에 병변이 생기면, 시신경유두의 부종이 심하지 않은 시신경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신경염은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시력과 시야장애가 시신경염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두 눈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쪽 눈의 시력과 시야장애의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한 경우에는 사물을 볼 때 대비감도가 흐려진 것 같다고 느끼거나 색이 덜 선명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신경염은 왜 생기나요? 뇌 MRI 검사는 왜 해야 하나요?

시신경염은 감염, 자가면역, 뇌의 종양, 약제(특히, 결핵약제)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원인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기저질환, 약물 복용 등의 확인과 여러 가지 혈액, 뇌영상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원인이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신경염 환자 분들의 검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왜 뇌 MRI를 왜 찍어야 하는가입니다. 시신경염에서 뇌 MRI를 찍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뇌 종양이나 눈 주위 조직의 종양에 의한 시신경 압박 병변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뇌하수체 종양에 의해서 시신경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발성경화증이나 시신경척수염과 같은 전신 자가면역 질환에 의한 시신경염의 동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경우 뇌 MRI 영상에서 진단에 도움이 되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신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 시신경염의 치료 이후 재발할 수 있으며, 예후가 불량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MRI 소견이 정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발성경화증이나 시신경척수염의 동반 위험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므로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시신경염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시신경염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집니다. 고농도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뇌나 부비동의 원인에 의해서 시신경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과 외의 다른 과와 함께 상의하여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환자 개개인의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시신경염의 예후는 어떤가요?

시력 회복 정도는 시신경염의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만큼 시력과 시야를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구적인 시력과 시야장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눈 또는 반대 눈의 재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도움글 주신 분: 영남대 안과 김원제 교수